



29. 플로리스트가 되는 길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현장 탐방 - 플로리스트 ▪ 플로리스트에 대한 이해 ▪ NCS를 통해서 본 플로리스트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직업 전문가를 통한 플로리스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플로리스트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NCS를 통해서 플로리스트로서 진로 수업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직업현장 탐방>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임지숙입니다. 플로리스트는 꽃으로 이제 꽃 자체가 이쁜데요. 그 예쁨을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드는 직업이고 꽃으로 만드는 이제 상품이나 아니면 행사들을 꾸미는 직업을 말합니다.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꽃다발, 꽃바구니 이런 제품을 이제 고객들이 바로 바로 사갈 수 있는 제품도 만들고 돌잔치나 웨딩 등 개인적으로 개인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꾸미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공간 레스토랑이나 기타 커피숍, 이런 데들에도 꾸미는 그 공간에 예쁘게 꾸미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기업행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꽃집 아줌마 혹은 꽃집 아가씨 이렇게만 생각이 됐지 저도 이제 거기서 꽃으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나 주의사람들이 꽃으로 무슨 대학을 가냐 꽃집에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플로리스트는 도대체 뭐냐 그 플로리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생소했던 때에 저는 갔기 때문에 다들 의아해했어요. 왜 꽃을 대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지? 화훼장식 기능사와 화훼장식 기사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사실은 따지 않아도 꽃집을 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따신 분들 저는 땀쥬. 근데 이제 저는 영국 자격증도 따고 한국 자격증도 땀어. 따시면 아무래도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교수 쪽으로 나가려는 친구들은 그런 게 아무래도 기반이 되 있어야 임용되는데 더 유리하겠죠. 저는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유학이 필수 이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다 되어있어요. 대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사설학교도 많고 심지어 뭐 그냥 백화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것들 사실 취미활동으로 하기 적합 한거고 석사과정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다른 공부를 하셨어도 석사과정을 밟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2년 석사를 밟으시고 뭐 플라워샵을 여셔도 되고 아니면 교수나 뭐 이런 아님 학점운영제 선생님 교수님 그렇게 분야는 많아요. 가실 수 있는 분야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본. 이

제 예전에는 네델란드랑 벨기에에서 많이 선생님들이 배우러 가셨다면 요즘에는 영국이랑 프랑스에 많이 가고 있어요. 추세가. 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말을 못하면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기반으로 돼 있어야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처음에는 초반에는 힘들었고요. 막 100군데에다 보내고 직접 막 갔어요. 가서 나 이런 거 보냈었는데 뽑을 채용할 의사가 없느냐 물어보면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이력서를 또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넘게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제가 가고 싶던 꽃집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자신의 홍보. 네. 구직을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꽃 시장은 새벽에 열잖아요. 밤 12시에 열어서 낮 1시에 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다 고객이잖아요. 그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뭔가 다 타임테이블이나 이런 꼼꼼해야겠죠. 체력도 좋아야되요. 베이스가 된 다음에 이제 디자인 능력이 있어야겠죠. 아무리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성실함 이런 게 있어도 꽃이 안 예쁘면 고객들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디자인 능력도 중요하게 되죠. 아무래도 가장 그 사람이 기쁜 순간에 저희가 함께 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돌잔치를 하고 백일파티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니면 뭐 엄마, 아빠의 생신, 친구의 생일 이럴 때 함께 하니까 그 어떤 사람에 중요한 순간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저의 지인이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저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게스트는 될 수 없다. 심지어 저는 제 웨딩 때 제가 꽃을 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하면 새벽 꽃시장하고 9시 이제 출근해서 기본적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수업이 있을 때는 아침부터 수업하고 거의 10시부터 하거든요. 10시에 수업이 있고 오후 타임이 또 있고 정말 큰 무슨 기업이 아닌 이상 혼자서 다 해야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운전도 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플로리스트는 섬세한 남자들이 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다예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물을 옮기고 그 꽃을 로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남자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섬세한 그런 감성까지 더해져있다면 그런 남자들한테 정말 최적화된 직업이고요. 여리여리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플로리스트 없어요. 다들 되게 힘이 뭔가 좀 세고 추진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이 강한 분들도 많아요. 플로리스트 중에서는. 꽃이 아무래도 화려하고 예쁘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밤새도록 작업할 때도 엄청 많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제주도에 어떤 기업에서 이제 중국 프레스 기사단을 초청을 해서 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는 3박 4일 내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 가시는 곳곳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꾸몄거든요. 결과물이 화려한 거지 저희의 직업은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플로리스트에 대해 마지막 꿈에 실현되는 건 꽃 자기 꽃집을 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굼직 굼직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클라이언트 잡기 힘든 사람들은 호텔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그 플라워 컴퍼니에 취직을 하면 돼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는 없죠. 그런 열정과 디자인 능력 그리고 부지런함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서 취직을 해서 충분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있어요. 저희를 아티스트로 생각해주셨을 때 제일 보람 되요.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오늘 작품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해줄때도 좋고 이에 손님들이 받았을 때 이 디자인 너무 좋다 이렇게 저희를 디지이너로서 인정을 해 줄 때가 제일 보람되고 기쁘죠. 수입은 되게 천차만별 이에요.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뭐 88만원 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턴 월급 그 정도 70만원 8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면 대학교수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냥 되게 조그맣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되게 적은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돈을 벌수도 있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돈을 받으니까 이번 달에는 100만원을 벌었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뭐 1000만원을 벌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자신의 영업능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디자인 능력에 따라서 급여가 많이 차이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기 낳고도 하기 되게 좋은 직업이죠. 왜냐면 유동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장난 식으로 막 70~80되어서도 이렇게 꽃고 있을 거라고 장난으로 말을 하는데 진짜로 한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시간, 은퇴 이런 나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백세시대가 도래하였으니 80살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플로리스트는 생각보다 화려하지만 생각보다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생활과 많은 것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사실 이런 저희 디자인에 대한 영감은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뭐 독서 아니면 영화 음악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영감을 받고 그것들을 표출을 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시고 경험하시는 게 플로리스트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이팅!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NCS를 기반으로 한 직업탐구 플로리스트가 되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플로리스트라고 검색을 하면요. 오 검색이 됩니다. 안 나올 거 같은데 나오죠? 플로리스트 그 다음에 공예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플로리스트하면 많이 정보가 나오진 않지만 수행하는 직무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화훼류를 소재로 이제 실내나 실외나 이런 공간에 대한 기능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효과가 높은 장식물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관련 된 업무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를 화훼 장식과 플라워 디자이너 플라워 코디네이터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흔하게 이제 꽃다발들 많이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꽃다발을 많이 받으시죠. 남편 분한테나 아내 분한테나 또는 학생들한테도 받으실 때도 있고 스승의 날에도 받으실 거 같은데요. 그런 꽃바구니를 만들어 하는 일들 그게 이제 플로리스트가 대부분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큰 행사장에서도 쓰는 부분도 있고 우리 꽃 박람회 놀러 가면 하는 일들도 대부분 플로리스트가 합니다. 플로리스트는 이렇게 공예원에 하나 속하긴 하는데요. 공예원이라는 것이 어떤 수작업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각종 수공예품이나 전통공예품을 제작하는데 그것에 이제 꽃으로 특화된 걸 이제 플로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공예원들은 조금 더 아무래도 플로리스트도 그렇고 공예원도 그렇고 손재주가 좀 뛰어나서 목재나 석재나 점토나 금속이나 대나무나 섬유, 종이 아주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공이 이제 전문이면 목공 예원, 석공 예원, 도자기 공예원, 칠 공예원, 금속 공예원, 섬유 공예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예원들이 이제 다양한 재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금속이나 꽃이나 이런 공구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장이 좀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환기와 청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는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날벌레라던지 이런 것도 많고 또 한 편으로 좀 도구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플로리스트는 그렇게까지 막 도구들이 많지 않겠지만 만약 공예업무를 할려고 하는 학생들 같으면 망치, 점토, 대패 아주 좀 날카로운 그런 도구들이 있어 가지고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이나 이제 필요로 하는 기술 이렇게 바라본다면 농업 고등학교에서 아예 플로리스트 관련한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학교나 이제 대학교에

도 관련학과들이 있어서 사설 또 학원에서도 평생 교육원에서도 문화센터에서도 좀 배울 수 있는데요. 국가자격으로는 화훼장식기능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취득하면 취업에 이제 유리할 수 있는데요. 고졸학력이 사실 플로리스트 중에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 장식에도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에도 이제 화훼장식학과가 별도로 있다고 하고 학점은행제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자격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인문사회에 자연예체능에 골고루 이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학력이나 자격증보다는 숙련 공예원에게 전문적인 부분을 도제 형식으로 점수 받는 것이 사실 중요 합니다. 그래서 열정페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긴 하는데요. 밑에 가서 수련을 통해서 배워서 익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직무죠. 직무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자격도 목공예나 석공예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능사가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 필요로 하는 화훼장식 기능사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니까 플로리스트라고 하면 꿈꾸는 학생들은 그런 자격증을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공예품 제작에서는 아무래도 모든지 이제 좀 섬세한 것 정교한 손동작 표현력 창의력 디자인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대개 중요한데요. 이게 좀 힘듭니다. 사실 굉장히 육체적인 작업을 견뎌야 되고 재료 자체가 또 무겁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때던지 기다려야 되니까 끈기나 인내도 필요하고 대개 이제 성격적으로 차분한 성격에 유형자가 적성과 흥미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장 가능한 직업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디자이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모든 일에 다 관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품, 가구, 자동차, 주얼리, 팬시 이런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능할 거 같고요. 보이기 위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던지 포장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포장 디자이너도 요즘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또 심지어 원예심리치료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이제 평온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실내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꽃을 가지고 따라 만들기를 통해서 심리치유를 하는 이런 심리치료사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계속 확장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NCS 분류 기준으로 우리 플로리스트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분류에는 이 인쇄, 목재, 가구, 공예 공예라는 것에 이제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분류에 보면 공예가 별도로 나옵니다. 소분류에도 이제 공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료에 따라 서로 다 다른데요. 세 분류에 들어가시면 단위 화의 장식이라고 보이고 능력 단위에 들어가시면 화훼장식 쪽에 이제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내용 환경을 보시면 이제 칠 공예, 목 공예 이 공예에 이제 하나에 되다 보니까 낮은 -과거에서 부터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단위 화훼 장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훼를 이제 재배하고 유통하고 제조하고 그걸 막 사실은 플로리스트는 재배 보다는 전반적인 그 재배된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만 벌써 5만개 가량이 되고 종사자만 15만 명이 넘는 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니까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예 분야라는 게 특성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는 좀 소규모고 영세한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공계 사업체에 경우에 평균 인력 중 1인 사업체 비율이 무려 46% 절반에 가깝게 혼자 다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이 27.1%고 5명 이상이 10.3%라고 하니까 사실상 소규모 업체들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직무에 불만족 하느냐. 의외로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직무에서부터 마무리 담금질까지 하다 보니까 직무적인 만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CS 학습 모듈을 보시면 화훼장식 디자인이라는 것이 화훼장식 식품, 장식품을 트렌드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제작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이제 조형미 자연미 자연을 또 살려야 되거든요. 그대로 훼손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지고 와서 그걸 디자인하고 기초조형이론과 양식을 비교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NCS능력단위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NCS능력 단위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NCS를 통하여서 봐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직무 기본 정보로 보시면 단위화에 양식을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화훼장식 보면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지 보셔야 되고 고객에 요구에 따라서 제작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조형미와 자연미를 잘 유연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플로리스트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 제목 맞나요? 가위 손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기계처럼 이렇게 딱 딱 딱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다세대가 아니라 이제 집으로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훼장식에 아주 잘 되어 있고 꾸며져 있는 곳도 아주 많죠. 우리나라에도 앞으로는 마찬가지겠지만 갈수록 그런 부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박사님도 은퇴하기 위해서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 이제 땅을 한 6천평 정도를 사서 가지고 화훼장식을 본인이 다 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주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또 화훼는 어떻게 장식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또 구경하고 심지어는 괜히 그렇게 만들어 놓 화원에 그죠. 입장료를 내고 많은 사람들 몰려가기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또 한편으로 큰 사업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학생들이나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심리적인 또 치유를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서 봅니다. 요즘 숲의 유치원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도 교육도 숲 안에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플로리스트가 보는 아주 꽃다발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큰 범위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동양형 화훼가 있고 서양형 화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형 화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 화훼형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초 조형 이론이라든지 동양형에 이제 화훼장식은 어떤 게 변형할 수 있을지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화훼장식과 기본 화훼형과 그런 것들 가지고 자유 화 형으로 또 아주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이런 트렌드 라든지 고객에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동양형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서양이 조금 다른데 서양형 화훼장식은 전통적인 이 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고 현대적 스타일에 이제 기법들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고 디자인을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니라 서양형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 가서 배워서 오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유화형에 접목시켜서 자기 만의 부분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따른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만들어서 파악해서 그 대응해 나가는 서양형 화훼장식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우리 학생들과 이런 거는 화훼 같은 경우 그림을 그리는 학습도 되게 좋을 거 같아요. 모듈 학습을 통해서 어떤 화훼 정원 우리는 정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동양형 화훼

그 다음에 서양형 화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직무는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구성을 하고 만들어 보시면 플로리스트로서 해야 될 역할들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찾아볼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꽃이라든지 이런 장식들 선생님들 가지고 와서 직접 만들어보고 해보는 역할 역할을 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고 이게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손에도 우리가 지식이 있고 두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이용해 보고 이렇게 한다면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정원 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멋진 플로리스트로서 이제 성장을 해서 세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들 순천만 정원 박람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순천만만 보다가 이게 2013년도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입장료가 뭐 화훼 보는데 뭐 이래 많아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감동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플로리스트가 조그마한 자기 공간에서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 넓게 그니까 동양형도 있고 거기에 보면 각 국가별로도 이렇게 화훼장식들을 만들어 놓 걸 보고 우와 제가 할 정보로 하루 종일 봐도 전혀 지겹지 않을 정도였었기 때문에 뭐 플로리스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순천만 정원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고요. 이런 부분을 꾸며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안내해 준다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보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